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 | “겨울방학을 잡아라”…PC·모바일 게임 업데이트 전쟁

넷마블 ‘세븐나이츠’

카카오게임즈 ‘달빛조각사’

엔씨소프트 ‘리니지M’

‘서든어택’ 본능 소재로…‘검은사막’ 가디언 추가

‘던전…’ ‘로스트아크’ 신규 업데이트 ‘달빛조각사’ ‘배그’ 등 모바일도 진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겨울을 맞아 앞다투어 인기게임에 새 콘텐츠를 추가하며 바람몰이에 나섰다.

먼저 성수기로 꼽히는 겨울방학을 맞은 PC온라인게임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규 콘텐츠 경쟁에 들어갔다.

넥슨은 ‘서든어택’에 대규모 캠페인 ‘쏴봐이벌’을 공개했다. 내년 3월까지 총 5회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존과 저항, 도전, 전투, 신의 등 다섯 가지 본능을 소재로 하는 새 콘텐츠를 선보인다. 첫 업데이트 ‘재난생존: 아포칼립스’는 12일부터 1월 1일까지 실시한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도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진: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RPG는 ‘로스트아크’에 신규 클래스 홀리나이트와 신규 대륙 페이튼을 선보이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홀리나이트는 서포트형 클래스이며, 페이튼은 데런종족이 모여 사는 대륙이다.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소울’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즐길 수 있는 ‘컴플리트’ 업데이트 콘텐츠를 11일 추가할 예정이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에 신규 클래스 ‘가디언’을 추가할 예정으로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가디언은 큰 전투도끼와 방패를 사용하는 여전사 캐릭터다.

엑스엘게임즈도 ‘아키에이지’에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정원’을 준비했다. 정원은 게임 내 세계관이 시작되는 지명이다. 12월에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리니지2M’의 출시로 요동치고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도 요즘 업데이트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에 ‘클래스 리부트&케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8개 클래스에 신규 스킬을 도입하고, 기존 스킬을 개선했다. 넥슨은 12월 ‘V4’에 ‘비텐고원의 비밀’ 업데이트를 단행하고, PC버전도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달빛조각사’에 9개의 신규 지역을 포함한 ‘Book 2.0 브렌트 왕국’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라인게임즈도 ‘엑소스 히어로즈’에 출시 후 첫 업데이트를 선보였다.

펄어비스 역시 12월 ‘검은사막 모바일’에 100명이 전투를 벌이는 ‘태양의 전장’과 신규 클래스 ‘샤이’를 추가한다. 넷마블은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에는 신규 직업 ‘린검사’를,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에는 신규 메인스토리를 추가했다. ‘세븐나이츠’에도 새로운 영웅 ‘파이’를 선보였다.

이밖에 펍지는 11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특별 겨울 테마 맵 ‘에란겔 겨울 모드’ 등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네오위즈는 ‘브라운더스트’에 새 월드 보스 2종을 추가했다. dionys@donga.com

카카오모빌리티, 병영 셔틀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에이블다온소프트와 ‘병영 셔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인에이블다온소프트는 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의 개발 및 운영사다. 육군 등 각종 군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시기별 병영 관련 정보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약 190만 회원이 이용 중이다. 양사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과 군부대를 왕복하는 병영 셔틀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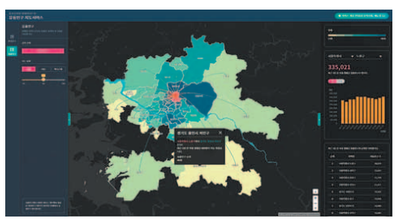
쿠팡 ‘홈파티 준비관’ 오픈

쿠팡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홈파티 준비관’(사진)을 오픈했다. 케이크와 스테이크, 디저트과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로켓프레시’ 상품들로 보다 쉽고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 로켓프레시는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오전 7시 전에 받을 수 있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다. 한편, 쿠팡은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상품을 모은 ‘2019 크리스마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SK텔레콤-통계청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SK텔레콤은 통계청과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시범 서비스(사진)를 시작한다.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가구 관련 공공 빅데이터와 SK텔레콤의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책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SK텔레콤 이동통신 기지국의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상에 선택한 지역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조작을 통해 주중·주말 또는 월 단위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다.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통계청은 이 유동인구 지도를 고도화해 교통과 관광 등 인구 이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분석 정밀도 역시 국가통계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LGU+,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 측위’ 협력

LG유플러스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 측위’(RTK·사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RTK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정밀지도 플랫폼’은 물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C-ITS)’의 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C-ITS는 차량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LG유플러스와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 1월부터 실무협의단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9월 5G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RTK 기술을 도입했다. RTK는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정보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경미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 받는다. 김명근 기자